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흐림 -

제목 : 여의도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아빠는 주말 내내 캠핑을 가서서
안 계셨다.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서만
여의도 공원에 자전거를 타러 갔다.
아침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가서 사람
들이 별로 없었다. 자전거를 빌려 한
시간 동안 타면서 천천히 달리기도 했고
쌩쌩 달리기도 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기도 했다.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면서 음료수와 간식도 먹었다.
엄마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지만
동네에서는 자동차 때문에 위험하니까
주말에 공원에 와서 마음껏 타라고
하셨다. 오늘은 정말 신나게 자전거를 실컷
타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